

신춘문에 당선작

시

증명사진

(김재준)

창문 밖의 풍향제는 한사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머리를...

요동을 치며 제 자리에서 한없이 날고 있는 화살을 바라보며...

햇, 빛의 칼날이 내려치는 2.5x3cm의 단두(斷頭) 나는 잠시 시력을 잃고 보이지 않는 하얀 피를 흘려준다

자, 한 번 더 찍습니다 내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십 번이라도 줄거리 목을 늘어놓을...

시 심사평

현대인의 고민 취업 예리한 관찰로 포착

시에 기운이 없다. 살가운 서정의 만지작거림도 없고, 이 더러운 세상을...

사소한 이야기를 그저 사소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인의 역할을...

정갈호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고래'는 온돌방의 고래와 바다의 고래를...

이성임의 '클리프 속의 여자'는 다른 응모작들을 포함해 단단한 언어...

오승근의 '소리를 쫓다'는 시작 묘사에 공을 들인 시인데, 말투가...

당선작과 함께 끝까지 겨룬 이해경의 '가벼운 집'은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

김재준의 '증명사진'을 흔쾌히 당선작으로 골랐다. 풍향계를 다룬...

긴 시간 잠복, 불현듯 나타난 시에 감사

당선소감



김재준

▲1967년 고흥 출생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오늘 순천만 갈대밭을 다녀왔습니다. 석양 속에서 푸른 날들이었으나 마른 화살들로 가득한 밤을 걸으며...

이기적인 연인처럼 시에게 세상을 변혁하라. 길을 보여달라. 악을 쓰다...

다락에 넣어둔 먼지 쌓인 꿈을 닦아주며 다시 써 볼 것을 권해준 기원이 씨, 나의 아내여, 당신이 베풀어준...

해찬아 슬야야, 나의 신앙들이야. 나는 너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주위에서 나를 낚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벽에서 한 점 가능성을 귀히 여겨 손을 내밀어주신 정운천 선생님, 시의 엄정함을 가르쳐 주신 강인한 선생님, 매 시편마다 쓴 소릴...

이문재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2년 '시운동'에 '우리 살던 옛집 지붕'을 발표하며 등단 ▲1995년 김달진문학상, 1996년-2002년 소월시 문학상, 1999년 시와시화 젊은시인상, 2005년 지훈문학상, 2007년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 ▲시집 '내 잊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호텔', 산문집 '내가 만난 시와 시인' '이문재 산문집' 등 다수

안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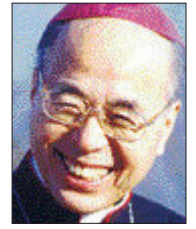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단국대대학원 문예창작학 석사 ▲1996년 시와시화 젊은시인상, 2002년 노작문학상, 2005년 이수문학상, 2007년 윤동주문학상 등 수상 ▲어른을 위한 장편동화 '연어', 시집 '간절하게 참 절없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등 다수

종교계 2009 신년 메시지

“위기는 곧 기회, 용기를 내 새 출발하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다. 활발했던 남북간의 교류도 중단되고, 국내의 정치상황은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후퇴...

우리 민족은 이보다도 더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난국을 극복한 자력이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할 때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연대의식 속에서...

소망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봉사...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자”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장 강상원 목사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원동력인 희망이다.

희망은 땅 속 깊이 들어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부어야 하는 마중물, 우리 삶의 마중물과 같다.

희망은 상황이 먼저 변화되어야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에서 시작된 희망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간다. 비전과 목표

를 향해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긍정의 실천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자.

끝이 깊으면 산이 높고,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한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향해 창조의 에너지로 함께 전진해 가길 기원한다.

“역경계 땀 절망 말고 순경계 만들어야”

광주·전남불교협의회 대표 영조 스님



어려움 때일수록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싸는 아름다운 풍속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마저 삭막해져서는 안된다. 역경계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 순경계를 만들어가고, 순경계에 있을 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역경계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라고 부처님께서는 타일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 어려움에 스스로 낙담하거나

주변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과 오만은 없었는가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물질적인 탐욕에 너무 집착하여 정신적인 가치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나만의 필요에 취해서 이웃과의 나눔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참회해야 할 때다.

분래가 부처인 우리의 본마음을 되찾아 새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무원칙한 이윤추구에 깊은 반성과 성찰”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김현 교무



“재산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했다. 올해는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웰빙 웰빙” 하면서 몸 건강만 생각하고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 없이 물질적 성과에만 치중해 왔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원칙 없이 이윤만 추구해온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한다.

오늘의 문제는 근본적 성찰 없는 응급처방 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 본다. 진정한 삶의 문제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무원칙한 이윤추구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 나갈 목표이며 시대적 과제다. 생명과 평화를 화두로 길을 찾아야 한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물자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만한 물자는 없다”고 한 건디의 가르침을 음미해 볼 때다.

Large advertisement area containing multiple ads for '큰농' (Kun-nong), '통뽕동 최고상권 임대 매체' (Tongpungdong), and '전통 침·뜸' (Traditional Acupuncture/Moxibustion) with various contact details and promotional text.